

한승택 “올 안방 주인은 나”



KIA 타이거즈의 한승택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안방 선점에 나선다.

한승택은 2019시즌 성공과 실패, 가능성과 속제를 동시에 확인했다.

시즌 초반 한승택은 약점이었던 타격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KIA의 포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타격이 주춤해졌고, 한승택은 타격 고민 속에 시즌을 마무리했다.

'기복'이라는 속제는 남았지만 안정감 있는 수비로 어필했던 한승택은 타격 가능성도 보여주며 2019시즌 1번 포수가 됐다. 무엇보다 입단 후 가장 많은 105경기에 출전해 쌓은 '경험'이 올 시즌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한승택은 지난 시즌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경지에 나섰다.

한승택은 “오답노트라고 할까. 문제점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서 좋다. 그런 게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백업을 뛰면 모른다. 그게 많이 다르다”고 지난 시즌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오답노트'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은 체력, 마음이다.

한승택은 “지난해 체력적인 문제가 심했다. 자신만의 타격폼이 있는데 시즌 때 (타격이 떨어질 때) 그걸 바꿔버리니까 안 됐다”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다. 나중에 그 말이 맞았다. 그래서 더 되 달았다”고 말했다.

시즌 중반 타격 부진의 답을 '체력 저하'가 아닌 '기술'에서 찾다 보니 타격 회복세가 더뎠다는 게 한승택의 평가다.

그는 “안 될 때는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 때문에 몸이 반응을 못 한다. '내 폼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대처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 것 같다. 체력이 떨어지면 몸 스

지난해 KIA 주전 포수로 도약 시즌 중반 타격 부진에 슬럼프

체력·기술 분석하며 단점 보완 스프링 캠프 준비하며 정신 무장

피드도 줄어든다. 그럴 때는 폼이 아닌 방향이를 바꾸라고 해서 이번에 방향이 무거운 각기 다르게 맞췄다”며 “웨이트에서도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최대한 중량을 더 끌어올리는 등 체력보강에도 신경 많이 썼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즌을) 길게 뛰면서 내 문제점이 나왔다. 그걸 이제 보완하면 된다”며 “마무리캠프 때 새로운 코치님을 하고도 해봤고, 코치님들 말씀과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대처를 하려고 한다. 생각, 멘탈이 중요하다. 머리로 복잡하게 폼을 생각하지 않고, 대신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식으로 최

대한 머리를 맑게 하면서 준비하고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책임감'도 한승택이 이야기하는 지난해 성과이자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다.

한승택은 “포수라는 자리가 중요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내가 실수하면 팀이 지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난해 포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선배들이 투수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다른 포수들이 물어봤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더 준비하고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경쟁자를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싸우게 아니라 자신과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한테 지면 안 된다. 스스로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캠프를 준비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야구를 잘하는 마음도 커지고 생각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 마음도 편한 것 같다”며 “부상을 조심하면서 실력을 늘려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디자인·영상 제작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KBO가 리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대학생 객원마케터를 모집한다.

객원마케터는 한 시즌 동안 KBO리그를 경험하고, 올스타전, 골든글러브 시상식 등 KBO의 주요 행사들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및 KBO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용 콘텐츠 제작에도 나선다.

객원마케터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8명이 선발된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상 제작, 디자인 작업, 사진 촬

영, 칼럼 작성 능력 등이 뛰어난 대학생을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객원마케터는 KBO리그 전 구장 출입이 가능한 2020시즌 AD카드와 단체복, 활동비를 받는다.

지원서는 12일까지 이메일 (kbp@koreabasebal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전남'

브라질 공격수 바이오 대전에 빼앗겨...구단 규탄 성명

전력 손실에 팬심도 냉담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쳤다.

전남은 지난 3일 '대전하나시티즌의 바이오 선수 영입에 대한 전남드래곤즈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전이 선수를 하이재킹하는 행위를 K리그 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를 묵과하고 방관하면 K리그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신뢰와 동업자 정신을 저버린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시즌 전남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브루노 바이오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남은 "구단 간 이적에 대해 합의한 공식 레터가 오간 뒤 선수와 협상 중인 가운데 현지에 이적료에 직접 접촉하여 선수를 하이재킹했다"며 대전을 겨냥했다.

전남 입장에서 바이오는 2020시즌 승격 도전에 중요 자산이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바이오는 16경기에 나와 10골을 기록하는 등 위기의 전남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남은 올 시즌에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고향으로 복귀한 '광양루니' 이종호,

새로운 외국인 선수 호도우프르 공격 극대화를 노렸지만 계약 불발로 없던 구상이 되고 말았다.

전력 한 축을 잃은 전남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억울한 심경'을 노출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1월 9일 시즌 최종전이 끝난 뒤 3달가량이 지나도록 확실하게 바이오와 서면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지난 1월에는 재계약 보도자료까지 냈던 안셀이 전력 구상에서 후 순위로 밀리자 계약 해지를 하고 경남FC로 이적하는 일도 있었다.

말만 믿고 있던 전남은 절대 전력을 잃고 팬심도 잃었다.

한편 대전도 '과도한 경쟁' 유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KEB 하나은행의 인수로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당한 대전은 허정무 이사장 체제로 올 시즌 새로 출발한다. 하지만 허 이사장은 지난해까지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선수단 인건비를 수입 대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구단 경영 효율화와 K리그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인물 중 하나다. 앞서 강조했던 효율성과 시장 질서를 외면하고 과도한 물량 공세와 계약 방해 작전을 펼친 만큼 대전에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축구, 도쿄행 상쾌한 출발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미얀마에 7-0 대승...9일 베트남과 2차전

역대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가 미얀마를 상대로 화끈한 골 퍼레이드를 이어가며 '도쿄행 티켓'을 향해 상쾌하게 출발했다.

플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얀마와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차전에서 '지메시' 지소연(철수)-박예은(경주한수원)-여민지(수원도시공사)의 '트리플 멀티골'에 이소담(인천현대제철)의 득점을 합쳐 7-0으로 크게 이겼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미얀마와 역대 전적에서 6전 전승을 이어갔다.

지소연은 멀티 골(2골)과 함께 박예은이 터트린 2골을 모두 돕는 '멀티 도움'까지 기록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한국은 오는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A조 2차전을 펼친다.

베트남을 꺾으면 A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B조(중국·호주·대만·태국) 2위 팀과 도쿄올

림픽 티켓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랭킹 20위인 한국은 44위의 미얀마를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강재림(인천현대제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지소연이 전반 6분 결승골로 만들면서 일찌감치 득점포에 불을 붙였다.

미얀마의 밀집 수비에 잠시 고전한 한국은 전반 37분 최유리(구미스포츠타운)가 헤딩으로 떨어뜨린 볼을 이소담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트로 추가 골을 꽂았다.

한국은 후반 20분 교체 투입된 여민지가 후반 36분 이소담의 왼쪽 코너킥을 헤딩으로 밀어 넣어 득점포에 가담하더니 후반 44분 김혜리(인천현대제철)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멀티 골을 장식했다.

후반 34분 교체 투입된 '유리파' 이금민(맨체스터 시티)은 후반 추가 시간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고, 한국은 골 사냥을 멈추면서 7-0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사우샘프턴전 득점포 재조준

내일 FA컵 32강 재경기

3경기 연속 득점포로 상승세를 탄 손흥민(28·토트넘)이 열흘 만에 다시 맞붙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또 한 번 득점포를 조준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6일 오전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2강 재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지난달 26일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열린 32강전에서 1-1로 비겨 안방에서 다시 격돌한다.

2부리그 팀인 미들즈브러와의 64강전에서도 재경기 끝에 승리한 데 이어 FA컵 2개 라운드 연속 재경기다.

사우샘프턴과의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팀이 후반 42분 동점골을 허용해 빛이 바랬다. 그러나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펼치며 불온 득점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 기간을 포함해서 한 달 반가량 골 침묵이 이어지다 23일 노리치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에서 헤딩 결승골로 2020년 첫 골을 기록했고, 사흘 뒤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전에서 연속 골을 폭발했다.

이어 지난 3일엔 EPL 2위 팀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2-0 승리를 완성하는 추가 골로 득점 감각을 완전히 살렸다.

이번 재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발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도 최근 EPL 2연승



을 이어가는 등 반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막 도전인 4위 추격에 다시 기대를 걸었다.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이적한 공격수 스테인 베르흐베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첫 경기인 맨시티전에서 결승 골을 터뜨린 것도 고무적이다.

토트넘이 이번 재경기에서 승리해 16강에 오른다면 상대는 노리치시티로 결정될 것이다.

EPL 최하위에 머문 노리치시티는 리그 11위 팀인 번리를 꺾고 16강에 선착했다. /연합뉴스